

주제: 야고보서에 나타난 세 기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ree Prayer's Sections in James) 강사: 이정현 교수

I. 들어가는 말

본 서신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쓰여졌음은 내, 외적 증거 자료에 충분히 나타난다. 내적 증거로는 야고보서 1장 서두에 나타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오순절 때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한 야고보(행1:14, 고전9:5)이며 고린도전서 15:7절과 갈라디아서 2:9절의 야고보임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의 설교문체와 본 서신의 문체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보아 입증된다. 외적증거로는 오리겐, 크리소스톰, 데오도르, 유세비우스, 아다나시우스, 어거스틴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기다가 ‘홀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 신앙에서 행위가 유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교훈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같은 목적에 연결되어 기록되는 것이 기도이다. 시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시고, 이신칭의의 신자가 정욕으로 쓰기위함이 아닌 개인적 필요를 위해서나 연약함과 고난중에 있는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것이 곧 신행일치의 삶을 말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써의 삶으로 기도를 강조한다.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에 관해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의 사죄를 위해 꿇어 비는 습관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Eusebus, H.E., ii, 23)고 했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아나누스(Ananus)가 야고보를 율법 파괴자의 죄명으로 공회에서 정죄하여 돌로 쳐 죽였는데,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돌에 맞았고, 임종시에는 십자가상의 주님의 기도처럼 원수들의 사죄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말한다(Josephus, Ant., xix, ix, 1). 이 역사가들의 말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때,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듯이 실제로 기도에 힘썼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야고보의 기도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목회자가 환자 심방시 5:13-18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것도 명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음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에 대한 세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을 생활과 목회에 바르게 실천하고자 하는데 본 소고의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의 과정은 서론에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을 말하고, 본론에서는 본서의 세 구절(1:5-8, 4:2-3, 5:13-18)을 통해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말하고자 했던 의미를 파악해 보고, 이어서 이 이론을 생활과 목회의 장(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지를 알아본 후, 결론적 교훈을 말하겠다.

II. 세 기도의 내용

신약성경 안에 기도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로는 ‘αἰτέω’, ‘εὐχομαι’, ‘προσευχομαι’, ‘δενσις’, ‘ἰχνησια’, 등이 있다. 야고보는 본인의 서신에서 기도(또는 구하다)를 말하면서(전체 12회) 1장과 4장에서는 ‘αἰτέω’의 변형어를 쓰고 5장에서는 ‘προσευχομαι’와 ‘δενσις’를 주로 사용한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위해 구하다’에서 ‘좀더 애절하고 절박한 간구어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기도를 말하는 세 구절의 내용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한다.

1. 지혜를 위한 기도(약1:5-8)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가? 데이비스(Peter Davids)는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의 소제를 ‘지혜는 기도를 통해 온다’고 정하고, 이것은 ‘완전해지기 위한 지혜’, ‘야고보의 개념으로써의 지혜’, ‘시험에 서기 위한 지혜’를 말한다고 했다(Davids 1982:71). 피터슨은 야고보의 지혜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는 도덕적

힘'이라고 했고(Peterson 1990:108), 벵겔은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 여기고 (벵겔 1992:301), 칼빈은 '1-4절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말했다(칼빈 1978:306).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평범한 유대인들도 설명없이 이해가능한 하나님의 선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일 것이다. 왜냐하면 설명없이 지혜란 어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흠어진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개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물론 본문에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데이비스나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은 야고보가 주장하고자했던 지혜는 유대인들이 추구해 오던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 더욱 온전해지기 위한 지혜와 원수의 시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도 포함된다고 본다.

왜 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를 잘 모르는 독자들이므로 지혜를 간구한다. '부족하다'는 말의 헬라어 '레이포'(λειπω)는 "...이 결핍되다"는 의미이다. 이 결핍은 모든 인간이 안고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분이신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후히'(ἄπλως)라는 말을 데이비스는 '후하게 (generously-Hort, Mitton, Cantinat), 단순히(simply-Mayor, Dibelius, Mussner)'로 해석하는 양 입장이 있음을 지적한다(Davids 1982:72). 로페스(Ropes)는 '하프로스'를 '자유롭게' 주신다는 뜻으로 본다(Ropes 1978:140). 고린도후서 8:2을 근거로 볼 때, 이 단어는 '풍성하게' 그리고 '후하게'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릇된 기도로써 하나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를 관용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기도응답자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한 것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 즉 실용적 지식을 풍성히 주시며, 우리가 약하여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책망하지 않는 분이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응답의 절대 조건에 관한 것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 본문에서의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태도'(Ropes 1978:140)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신뢰로써의 믿음'을 말한다고 본다(Robertson 1933:14).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교훈은 이미 복음서에서 잘 알려진 사실로 기도응답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을 환기시켜 준다(막 11:23, 마21:21). 의심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가진 것과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물결처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할 것을 명령하심과 동시에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므로(마7:7, 요14:14)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동시에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궁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뜻이다(칼빈 1978:307).

2. 개인적 필요를 위한 기도(약4:2-3)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서의 논지는 두가지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이다. 2절과 3절은 앞 구절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 나타난 ‘싸움, 다툼, 정욕, 욕심, 살인, 시기’로 어떤 것을 격렬히 추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궁극적 원인과 연결된다. 필요를 채우려는 지독한 욕심과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 정당한 방법이 기도임을 말한다.

전자에서 ‘우크 에케테’(얻지 못함)의 원인이 ‘메 아이테이스다이’(구하지 아니함)이다. 기도하지 않음이 얻지 못함의 원인이다. 이것은 ‘싸움과 정욕과 살인’으로 얻고자 했던 자들에게 일격을 가하는 말이다.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고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리트핀 외 3인 1994:200)라는 말은 합당하다. 그리고 ‘아이테이스다이’(αιτειοθαι)는 3절의 ‘아이테이스테’(αιτειοθε)와 같이 중간태로 쓰여졌는데, 이는 능동태보다 ‘기도의 정신을 더 잘 표현한다’는 마이어(Mayer)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후자는 나쁜 동기를 갖고 기도하나 역시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은 ‘쾌락적 낭비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다(리트핀 외 3인 1994:200-201). 이런 자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아 얻지 못함과 일반이다. “전적이기심과 세속적 동기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Davids 1982:160). 그리고

로 전자와 후자는 각각 구분되는 두 가지 얘기가 아닌 한가지, 즉 ‘응답받지 못함’의 이유이다. 개인적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한 악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 받을 수 없다.

3. 치유를 위한 기도(약5:13-18)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1) 여기서 소 주제를 몇가지 뽑을 수 있는데, 그 첫째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다. ‘고난 당하는 자’와 ‘병든 자’는 일맥 상통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나 병보다 고난이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본다. 병은 고난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고난의 한 예에 해당된다. 야고보처럼 인생을 ‘고난’과 ‘즐거움’으로 나눈다면 그때마다 각각 행해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행위가 있다. 고난은 기도와, 즐거움은 찬송과 연결된다. 성도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명령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못지 않게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

2) 둘째는 기도와 기름부음의 관계이다. 병든 자가 교회의 원로를 초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기거동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픈자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장로를 찾아 가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는 단순히 기도할 장로들을 불러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Peterson 1990:110). 또한 장로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병자가 치유될 때 한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는 것의 역 기능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기도로 병약하고 지친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떠한 개인의 능력인양 자궁해서는 안된다. 장

로는 기도 치료자(prayer-healers)나 기적 행하는 자들(miracle-workers)도 아니다 (렌스키 1978:561).

초청 받은 장로들은 병자를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왜 야고보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보편적으로 네가지의 해석이 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로 장로를 청함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다분히 종교적 의식을 말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을 근거로 8세기 말부터 죽어가는 자에게 사죄의 표시로써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생겼고, 12세기 트렌트 회의의 결정을 거쳐 중유식(Extreme Unction)이 교회의 칠 성례 중 하나가 되었다. 기름부음이 원의(原意)와 달리 완전히 종교의식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칼빈에 의해 강하게 비판 받는다(야고보서 주석과 기독교 강요 4권 19장 18-21항을 참고하라).

두 번째는 의약적 의식과 종교적 의식의 병행을 가르친다는 주장이다. 환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의 비 종교적 상황에서의 일반적 관습으로 일종의 약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이므로, 병자를 위한 종교적 의식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약과 기도를 병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병자가 있을 때 병원의 의사나 약사를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둘 다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이므로 약도 먹고 기도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제자들이 고을을 다니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막6:13)는 구절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세 번째는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단어가 ‘크리아’(Χρῖα-의식적으로 기름을 붓다)가 아니고 ‘알레이프산테스’(αλειψαντες-기름으로 문지르다)가 사용된다. 후자는 세속적인 단어인데 반해 크리아는 “신성하고 종교적인 단어이다”(Trench 1950:135-137). “따라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유의 수단으로써 의식상 혹은 전례상의 기름부음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의를 표하거나 원기 회복이나 몸 치장의 수단으로써 기름을 사용하는 일반 풍습을 지칭하고 있다”(Hayden 1981:264)고 하이든이 주장한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눅7:38-알레이포)나, 주인이 그의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눅7:46-카타알레이포)는 말이나 금식하는 사람이 슬픈 기색이나 몸치장이 덜 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얼굴을 씻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마6:17-알레이포) 사용되는 단어가 알레이포이다. 결국 단어의 용례로 볼 때, 이때의 기름이 의

약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논점은 약하고 지치고 병든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며 의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리트린 외 3인, 1994:216. 재인용). 결국 이 주장은 치료의 효과를 바라며 바르는 기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전해져오는 의식의 일종도 아니라 단순한 몸치장의 관습이라는 것이다.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보통의 관습이다”(렌스키 1978:560).

네 번째로 이것은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랄프 마틴의 주장으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문자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로 보아야 하며, 상징적 의미로 본다는 것은 곧 병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위해 구별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Martin 1986:208)고 본다. 기름 부음 자체의 어떤 효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자들이 기름을 부음으로 회중과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의 네 가지 해석 중 본문을 근거로 8세기에 생겨난 가톨릭의 ‘종부성사’(終傳聖事)는 칼빈에 의해 심한 공격을 받고있어 이미 공적, 객관적 입장의 정통 교리로 받아 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설이 만약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의도라면 지금도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부음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아 학자들의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것을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이해하는 불루의 이론과 상징성을 부여한 마틴의 견해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는 소제이다. 사실인즉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장로나 기름을 붓는 행위가 아니라, 병든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prayer of faith)를 드리는 것이다. 기름을 바르는 인간적인 행위로 병자가 치유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연약한 자가 치유될 수 있다.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를 드리되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이같은 사실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진리이다.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간곡한 청원은 육적 병에서의 나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굳이 육적 병에서의 나움이라고 한 것은, 15절의 헬라어 ‘σωσει’를 육적인 병에서의 나움(Ropes, Peterson, Davids), 영생으로의 구원(von

Zoden), 둘 다(Clarke)를 말한다는 다양한 견해 중 첫째를 가장 좋은 해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기도와 그 결과는 뒤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구절과 일맥 상통한다. 야고보는 본문의 구조를 15절 초반부의 믿음의 기도와 16절 후반부의 의인의 간구와 연결시키고, 그 중간에 죄를 서로 고하는 것과, 마지막 17-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응답과 연결된다. 그래서 본인은 이 구조를 따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엘리야의 기도 순으로 내용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병 낫기를 위한 서로의 죄 고백을 살펴볼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구절에 종속되는 예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의 구두 선지자(oral prophet)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변화 산상에 나타났고(막9:4),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였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선지자이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선지자를 기도응답의 증거로 거론한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의인의 간구도 응답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주의 형제가 선지자를 거론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간절히 기도한즉,다시 기도한즉”이다. 열망을 품고 강청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열왕기상 18:42절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표현에서 자유롭게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도에 관한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충분히 엿보인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문자적으로 ‘기도를 기도했다’는 전형적 히브리식 표현으로 애절함을 더한 표현이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다가, 다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하늘이 비를 줌으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것은 초자연적 이적이 기도를 통해 나타났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으로 간구한다면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앞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사이에 놓이는 내용(15절 후반부와 16절 상반부)은 병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한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병과 죄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관계는 마가복음 2:5, 요한복음 5:14, 9:2-3, 고린도전서 11:30 절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 사실을 근거로 이 관계를 도그마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죄이긴 하나 모든 병의 원인이 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은 몸에 병을 가졌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나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만약 죄의 원인으로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처리함으로 병 낫기를 소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16절의 말씀처럼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공중성은 상황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나 고백과 용서의 객관성을 입증함으로 유익하다. ‘서로 고하며’라는 말은 장로와 병든 자를 포함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가톨릭의 주장처럼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개신교의 만인제사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의 고백은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이며, 외식적인 아닌 마음에서 올라나는 고백이어야 한다. 이런 고백의 근거 위에 병자가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병 낫는 효력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보다 더 큰 은혜인 죄 용서의 영적 복까지 얻을 수 있다’(칼빈 1978:369).

III. 실천적 적용

교회에서 신자들을 교육할 때와 설교할 때 상술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다음에 피력되는 내용들이 주관적인 적용방법일 수 있지만 개인 경건 생활을 확장하거나,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도록 설교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1. 개인 경건 생활 차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주제는 야고보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과 매일의 필요와 병자를 위한 것이다. 시련과 원수를 이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언제나 있어야 함으로 이 주제로 기도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매일의 필요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자와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는 골방에서도 가능하겠으나 공적으로 병실의 환자를 찾아 기도할 때 본문의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간절히, 믿음으로, 죄를 고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겠다. 이같은 간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2. 교육적 차원에서

머레이가 ‘기도학교’(school of praye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로 작금의 많은 한국 교회는 기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이 내용을 기도학교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한 과의 주제를 ‘야고보의 세 기도’로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소 주제로, 1)지혜를 구하라 2)개인적 필요를 구하라 3)병자를 위해 기도하라로 잡을 수 있다. 그 이하의 내용은 위의 본론을 요약하고 또한 성구를 참고하여 교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년초의 제직들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말은 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이 기도를 권고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일꾼으로서 사명감당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와 은혜와 힘을 구할 수 있고, 아울러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혹시 연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의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를 가르친다. 또한 기도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강 시간에 야고보의 세 기도를 가르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제직들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한다.

3. 설교적 차원에서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있다면 3일에 걸쳐 야고보의 세 기도를 하나씩 설교할 수 있다. 기도를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는 달의 주일 저녁 예배시나 아니면 수요일 저녁의 연속 3주 설교를 할 수 있다. 본인은 위의 두 경우 뿐만 아니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도 적용해 보았다. 설교할 때 주의해야할 것은 충분히 그 내용을 익히고 해석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적당한 성구를 더 찾아 말씀을 풍성케 할 필요가 있다. 기억할 것은 설교할 때, 명료하고 확신있게, 적당한 예를 통해 감동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적 교훈

야고보는 기도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실제로 기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이론적으로나 실행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이런 입장에서 그의 기도를 정확히 배워서 삶속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나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혜뿐만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써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다양한 영육적 필요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 세속적 수단과 방법, 또한 잘못된 동기의 기도로는 얻을 수 없으나 자녀로써 아버지께 합당히 기도하면 천부께서 주신다. 특히 환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죄를 서로 고함의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할때 주께서 역사하사 병자를 일으키신다. 효력있는 모든 병고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참고문헌

- 렌스키 R. C. H., 1978. *야고보서*. 서울:백함출판사.
- 리트윈 D. 외 3인 1994,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서울:두란노.
- 벵겔 J. A., 1992. *신약주석-야고보서*. 서울:로고스.
- 칼빈 J., 1978. *칼빈성경주석-4권*. 서울:성서교재간행사.
- Dauids P., 1982. *Commentary on James*.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
- Hayden D. R., 1981. "Calling the Elders to Prayer", *Bibliotheca Sacra* 138. July-September.
- Martin R. P., 1986. *Word Biblical Commentary-James*. Waco:Word Books Publisher.
- Peterson D. G., 1990. "Prayer in the General Epistle", D. A. Carson ed., *Teach Us To Pray*. Grand Rapids:Baker Book House.
- Robertson A. T., 1933.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VI*. Nashville:Brodman Press
- Ropes J. H., 1978. *Epistle of St. James*. Edinburgh:T. & T. Clark.
- Trench R. C., 1950. *Synonyms of the New Testament*, ninth ed. reprint. Grand Rapids:Wm. B. Eerdmans Publishing Co.